

東西獨 經濟交流와 獨逸統一政策

尹 洪 九*

— 目 次 —

- I. 序 論
- II. 東西獨間의 關係
- III. EC와 COMECO에서 東西獨의 位置
- IV. 東西獨間의 經濟交流
- V. 東西獨間의 生活水準比較
- VI. 交易이 東西獨에 미치는 영향
- VII. 結論

I. 序 論

今年初부터 한 企業家의 北韓訪問이 큰 話題가 되어 金剛山 구경이 可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預見할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것이 可能하게 되면 이를 出發點으로 하여 韓國의 平和的 統一도 생각하여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希望도 가질수 있게 한다. 韓國의 平和統一을 論할때 우리는 같은 分斷國인 獨逸에서는 統一政策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를 자주 생각하게 된다. 이때 韓國과 獨逸은 어떤 共通點을 지니고 있으며 또 어떤 差異點을 가지고 있나도 考慮하게 된다.

그런데 그 共通點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1) 韓國과 西獨은 다 같은 自由友邦의 一員이며 北韓과 東獨은 共產主義國家에 屬한다.
- 2) 韓國과 西獨은 平和的 方法에 의하여 祖國을 統一하고자 社會的 制度와 政治的 理念을 超越하여 國土統一에 努力하고 있다.
- 3) 韓國과 西獨은 北韓과 東獨과 比較하여 人口나 經濟的 能力이 優位에 있다.

* 本 研究所 研究員, 商經大學, 經營學科 副教授(經營學博士)

產業研究

4) 韓國과 西獨은 다 같이 美國과 軍事的 同盟關係에 있으며 北韓과 東獨은 蘇聯과 同盟關係에 있다.

위와 같은 共通點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統一問題에 있어서 韓國과 西獨은 서로 다른 立場에 서게 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理由가 있기 때문으로 理解된다.

- 1) 韓國은 6·25와 같은 戰爭을 겪었으나 獨逸은 그 時間에도 統一問題를 研究하였다.
- 2) 獨逸은 統一된 現代的 國家를 가진 經驗이 있는 反面 韓國은 植民地 經驗이 있어서 政治的水準에서 差異가 있을 수 있다.
- 3) 獨逸은 基督教가支配하는 유럽에 있는 反面 韓國은 東洋文化圈에 屬한다.
- 4) 獨逸은 東西獨이 다 같이 UN에 同時加入 되어 있는데 韓國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南北韓間의 經濟交流가 우리의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는 이 時點에서 우리보다 앞서 經濟的 交流를 하고 있는 東西獨 貿易關係가 어떤 特性을 지니고 있나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南北韓關係에서 發生할 수 있는 유사한 關係에 參考가 되도록 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 本論文의 趣旨이다.

II. 東西獨間의 關係

多樣한 접촉과 이웃관계는 二次大戰後부터 계속되고 있었으며 聯合軍에 의하여 생겨난 점령지역간의 경계는 처음에는 一般市民들의 生活에 큰 不便을 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聯合軍의 立場에서도 全獨逸을 하나의 經濟的 文化的 單一體로 보아온 것도 事實이다. 따라서 登校를 한다던가 出勤, 物品購買, 家族이나 親知訪問, 경우에 따라서는 地域行政團體間의 協力關係도 원활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東西ベル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해마다 늘어나는 동독피난민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東獨은 1960年에 歷史的인 벨린장벽을 쌓게 되었다.¹⁾ 이로 因하여 東西獨間의 關係는 몹시 不便한 사이가 되었으나 꾸준한 努力끝에 1972年에 맺어진 東西獨間의 基本協定으로 많은 改善을 보고 있다.

1) 그 당시 一年에 14만~33만 名의 東獨이 西獨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으며 이 事實은 東獨으로서는 하나의 커다란 위기가 아닐수 없었다.

VGL. DDR Handbuch, Hrg. Von Bundesministerium für Deutsche Beziehung 1985. pp.630ff.

東西獨 經濟交流와 獨逸統一政策

1972年 12月 21日에 맺어져 1973年 1月 1일부터 効力を 發生하게된 基本協定(Grunvertrag)
의 内容은 大略 다음과 같다.

第一條：獨逸聯邦共和國(西獨)과 獨逸民主共和國(東獨)은 平等的의 原則에서 正常의이고
善隣的인 關係를 發展시킨다.

第二條：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UN憲章에 明示된 目的과 原則에 의하여
특히 모든 國家의 主權의 平等과 그의 獨立性, 自立性, 國土의 不可侵性, 自決權, 人權尊重
等을 遵守한다.

第三條：UN憲章에 따라 獨逸聯合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相互의 紛爭關係를 全的으
로 平和的인 方法으로 解決할 것이며 武力を 隨併하는 齊迫이나 어떠한 武力行使도 禁止한
다. 兩者는 지금 兩者사이에 形成된 그리고 將來에 形成될 境界에 대하여 不可侵의 關係에
있음을 強調하며 領土에 대한 絶對的인 權威를 保障한다.

第四條：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餘他國際關係에서 全獨逸을 代表할 수 없으
며 全獨逸의 이름으로 行動할 수 없다는 原則에 同意한다.

第五條：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유럽諸國과 더불어 平和的 關係를 伸張하며
유럽의 安全과 協力에 이바지 한다. 兩者는 유럽의 軍事力과 軍備縮小에 적극 協力하여 軍備
縮小에 의하여 어떠한 加盟國도 安全에 不利하게 作用되여서도 안된다.

第六條：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兩者的 主權을 지금의 境界에 限定한다. 兩者
는 各者의 自主性과 獨立性을 對內的 또는 對外的 諸般問題에서 尊重한다.

第七條：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兩者の 關係가 正常化됨에 따라 實際의
問題와 人間의 問題를 다를 用意가 있음에 合意한다. 兩者는 이 基本協定의 原則에 따라
다 같이 利益이 되는 經濟, 科學과 技術, 交通, 法律, 郵便, 電信電話, 衛生保健, 文化, 運動,
環境保存 그리고 其他分野를 開發하고 研究하는 協約을 맺을 것이다.

이에 대한 細部的인 것은 追加協定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第八條：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本基本協定에 의하여 이미 兩者間에 締結되
었거나 兩國과 關係되는 兩者間 또는 多者間의 國際條約이나 協定에 影響을 미치지 않기로
合意한다.

2) Gaus, Günter, Texte Zur deutschen Frage, Darmstadt 1981. p. 88ff.

產業研究

위에서 살펴본 基本協定은 兩側이 다 같이 統一보다는 兩者間의 平和維持가 더 重要한 것임을 明確히 한 結果라고 하겠다. 이 協定의 結果로 西獨은 西方側의 그리고 東獨은 東歐側의 國際的組織에 더욱 강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緊張緩和政策과 유럽의 平和維持가 政策的 優位에 서게 된다는 事實은 西獨과 東獨이 그들 兩國의 統一政策이나 다른 國家와의 外交政策에서 獨逸統一政策을 疏忽하 하였다는 것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反對의 경우가 더 事實에 가깝다. 이렇게 볼 때 西獨은 西歐圈에서 東獨은 東歐圈에서 더 積極的인 役割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西獨과 東獨은 기존의 友邦과 그들의 外交政策을 現存하는 事實上의 立場에서 出發시켜야 했다. 다시 말해서 받아 들일 수 없는 現狀(Status Quo)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妥協(Modus Vivendi)으로 바꾸어 놓아야 했다.

이와 같은 問題는 西獨과 東獨이 서로 反對的 感情을 지닌 東方政策이나 獨逸統一 問題와直接 連結된다. 그들은 總體的 對立關係에서 部分的 이나마 同行關係로 轉換되어야 했다.

基本協定 以前까지의 東西獨間의 關係를 볼 때 西獨은 東獨의 政治的, 社會的 體制를 拒否하기는 하였으나 謗謗하는 態度를 國際舞臺에서 取하지는 않았다.

反面에 東獨은 오랜 期間동안 西獨을 신랄하게 非難하여 왔다. Waller Ulbricht가 東獨共產黨 第一書記로 있을 때만 하여도 서슴치 않고 “獨逸民族의 社會主義國家(sozialistischer Staat deutschen Nation)란 말을 자주 하였다.³⁾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 比較的 유연성을 보이는 Erich Honeker가 그 자리에 있게 되고⁴⁾ 하나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후 細部的 追加協定이 계속 이루어져⁵⁾ 지금의 東西獨關係는 部分的 解決策이기는 하지만 원만한 狀態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東西獨關係가 正常化됨에 따라 數百萬의 西獨사람과 東獨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었며 이로서 그들은 다 같은 獨逸人을 再三 確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獨逸이 分斷되기 以前에도 南部사람과 北部사람 東部사람과 西部사람들의 서로 다른 氣質과 親疎關係가 하나의 重要한 社會的 要素이었던 點을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獨逸人임을 認識하게끔 그들

3) Luz, Peter Christian, Deutschlandsdoppelte Zukunft, München, 1974. S. 96.

4) "DDR, Wandel durch Abgrenzung?"

Eine SED-interne Analyse der Deutschlandpolitik des Polithüros, in Der Spiegel, Nr. 26, 36Jg. S. 32 ~33.

5) DDR Handbuch a, a, O. S. 643.

東西獨 經濟交流과 獨逸統一政策

의 同質性을 強調하였던 歷史的 事實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간격을 가지게 됨은 오히려 당연 할련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간 分斷된 國家의 國民이 親知나 親戚의 訪問 또는 觀光을 通하여 서로 알게되고 서로 다른 體制를 比較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진다는 것은 國民의 自決權을 行使할 수 있는 判斷基準을 提供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커다란 成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몇가지 實例를 들어 보고자 한다. 다음은 1969年부터 1984年까지 東獨과 西獨 및 西部벨린間의 電話線 架設數와 通話量을 表로 作成한 것이다.

〈表-1〉 東西獨間 電話線數 및 通話量

年度	電話線數		通話量*
	西獨	西ベル	
1969	34	—	0.5
1970	74	150	0.7
1971	134	150	1.8
1972	182	201	5.1
1974	278	201	6.1
1975	278	441	9.7
1977	368	453	12.8
1978	440	501	16.7
1979	524	537	20.6
1980	608	573	23.0
1981	692	609	23.4
1982	764	657	23.1
1983			23.2
1984	860	657	23.2

* 電話量은 100万單位

資料 : DDR Handbuch 19865. S. 632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電話線은 1971年 以後 급격히 上昇하였으며 通話量은 1980年 以後부터는 포화점에 이른것 같다.

뿐만 아니라 東西獨間의 旅行者數도 增加하였다.

産業研究

〈表-2〉 東西獨間의 旅行者數

年度	西獨人	東獨人*
1970	1,254,084	—
1975	3,123,941	40,442
1980	2,746,237	40,455
1983	2,219,868	64,025

年金 生活者는 除外

資料 : DDR Handbuch 1985. S. 634.635

〈表-2〉에서 알수 있듯이 西獨의 旅行 旅行者數가 獨逸의 旅行者數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다. 이는 獨逸에서 外國旅行을 여러가지로 制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書籍이나 時期刊行物의 例를 들 수 있다. 書籍의 경우 1970年以後 東西獨 사이 그 購買量이 증가한 反面 定期刊行物의 경우 東獨側 購買는 增加하였으나 西獨側은 오히려 減少한 便이다. 이는 西獨은 基本協定以前에도 東獨의 定期刊行物을 充分히 購買하였던 것으로 理解된다.⁶⁾

비록 東西獨間의 關係改善이 예나 지금이나 東西兩大陣營의 全體的인 立場에 크게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東西獨關係는 점점 安定을 찾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平和를 保障한다는前提下에서 東西獨은 모두에 有益하다면 다같이 努力할 것이다. 그러나 東獨의 立場에서는 政治的 그리고 經濟的 安定에 主力하게 되나 西獨의 경우는妥協을 通하여 東獨과 善隣關係를 유지하고 이로써 西ベル린의 安全이 더 重要示 된다고 하겠다.

III. EC와 COMECON에서 東西獨의 位置

東西獨이 그들이 加盟한 經濟機構에서 主要한 役割을 한다는 點을 앞에서 指摘한 바 있다. 그러면 西獨의 對外貿易關係를 살펴 보기로 한다.

6) Vgl. DDR Handbuch 1985. S. 640.

東西獨 經濟交流와 獨逸統一政策
 〈表-3〉 西獨의 地域別 貿易量

(單位 : 10억 DM 1985年)

輸出入 地域別	輸 入		輸 出	
E C	225,391	48.6%	254,879	47.65%
其他 유럽國家	77,340	16.7	106,914	20.0
東歐 圈 (蘇聯)	26,320	5.7	27,901	5.2
北美洲	(13,639)	2.9	(10,527)	(1.97)
其他 工業國	36,170	7.8	61,015	11.4
O P E C 國	26,526	5.7	18,208	3.4
其他 開途國	27,105	5.8	25,204	4.7
	44,683	9.6	41,339	7.7

資料 : Der Fischer Welt Almanach 1987.

Sp. 113~914.

輸出에 있어서 西獨은 1985年에도 日本을 앞질러 美國 다음으로 世界第二의 輸出國이 되었다.⁷⁾ EC國家와의 交易에 있어서도 여러나라에 고루 分布되어 있다. 例를 들어 輸入에 있어서 全輸入의 12.6%를 네덜란드, 10.6%를 블란서, 8.0%를 英國에서 輸入하고 있으며 輸出은 1.9%를 블란서, 10.3%를 美國에 그리고 8.6%씩을 네덜란드와 英國에 輸出하고 있다.⁸⁾ 위의 表에서 보듯이 西獨은 어떤 한 나라에 置重하지 않고 있으며 그 相對國이 先進工業國임을 알수 있고 그 物量으로 보아 EC를 先導하는 工業國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西獨은 東獨과의 交易을 貿易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위의 表에는 集計되지 않았다.

東獨의 對外貿易에 대한 資料는 西獨처럼 正確하지는 않으나 1984年에 輸入은 835억5천 VM이고 輸出은 904억VM을 기록하고 있으며 계속 貿易黑字를 내고 있다.⁹⁾

7) Vgl. Der Fischer Welt Almanach 1987. Sp. 911~912.

8) Vgl. Der Fischer Welt Almanach 1987. Sp. 911~912.

9) 1984년 현재 IVM(Veluta Mark)=0.754DM.

10) vgl. Der Fischer Welt Almanach 1987. Sp. 919.

産業研究

1984년에 共產國家로 부터의 輸入은 556억 1800만 VM이며 資本主義國家로부터 輸入은 278 억 8300万 VM이고 輸出은 각각 586억 7300만 VM와 317억 2900万 VM이다. 1960年代 以後의 東獨의 貿易關係를 살펴보면 다음 表와 같다.

〈表-4〉 東獨의 國家群別 交易量

(單位 : 100万VM)

年度	共產國家	資本主義國	開途國
1960	13799	3897	791
1965	18241	5346	1106
1970	28340	9656	1601
1971	39259	10268	1714
1972	33240	12039	1494
1973	36780	14904	1818
1974	41055	19791	3167
1975	51845	19295	3254
1976	57330	24208	3918
1977	65464	21758	4504
1978	69846	22005	5028
1979	74891	28283	5670
1980	79810	32960	7331
1981	88944	37841	6542
1982	95834	40845	8430
1983	104629	74156	8638
1984	114291	51368	8243
1985	119043	52903	8244
1986	122630	51401	7938

資料 : DDR Hand Buch 1985. S. 127

Statistisches Jahrbuch 1988. Statistisches Bundesamt,

1988. Wishadien. S. 616.

위의 表에서 알수 있듯이 1970年代 以後 東獨은 資本主義國家와의 交易을 차츰 증가 추세

東西獨 經濟交流와 獨逸統一政策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年代初만 하여도 共產國家群과 資本主義國家群과의 交易量은 3:1程度였는데 1980年代後期에 들어서면서 2:1程度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80年代에 들어와서 東獨의 資本主義國家와의 交易量(輸入十創出)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共產主義國家와의 交易量中 COMECON諸國과의 比重은 계속해서 90%를 초과하고 있는 實情이어서¹²⁾ 東獨의 貿易은 COMECO諸國과 資本主義國家들과의 交易이라고 할수 있다. 西獨의 貿易量의 50% 조금 못되는 程度가 EC國家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네덜란드, 브란덴부르크, 英國, 이태리등에 고루 分散되어 있는 反面 東獨은 70%程度의 貿易量이 COMECO諸國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國家國에서도 東獨의 貿易은 蘇聯에 편중되어 있다. 이 關係를 表로 作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表-5〉 東獨과 蘇聯의 貿易

(單位 : 100万VM)

年 度	195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4
東獨의 對蘇 交易量	1,461	7,907	10,566	15,485	26,539	42,609	73,903
全體의 比率 %	39.7	42.8	42.8	39.1	35.7	35.0	38.5

資料 : DDR Handbuch 1985. S. 128. Der Fischoer Almanach 87. Sp. 911~12.

위와 같은 東獨의 對蘇貿易偏重關係는 이 두나라가 서로 补完的 性格을 지니게 된데서 由來된다고 볼수 있다. 東獨은 蘇聯으로부터 목화, 石油, 鐵礦石, 木材等을 輸入하며 蘇聯은 投資材를 東獨에서 輸入하고 있다. 蘇聯은 東獨으로부터 機械와 設備材 輸入中 1/4은 東獨에서 輸入하고 있다.¹³⁾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東獨의 貿易量은 西獨의 그것과는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왜소하다. 그러나 蘇聯의 경우 처럼 東歐圈의 貿易은 그들 國家經濟 特히 生產에 必要한 財貨를 外國으로부터 輸入하고 消費財의 相互間 交易은 그리 많지 않다. 다시 말해서 東歐圈 國家들은 共產品의 相互交換에 의한 消費의 多樣化를 피하기 보다는 不足한 生產材를 外國에서 輸入하여 自給自足的 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때 貿易量 自體만 가지고 東西獨의 經濟力を 比較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 다만 東獨은 西獨에 比하여 너무

12) Vgl. DDR Handbuch 1985 S. 128.

Das Statistische Jahrbuch 1988. S. 616.

13) Vgl. DDR Handbuch 1985. S. 128.

Der Fischer Welt Almanach 1988. Sp. 919.

產業研究

지나치게 COMECON諸國에 貿易이 편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蘇聯과의 의존관계가 지나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4. 東西獨間의 經濟交流

二次大戰 直後 아직 東獨과 西獨의 政府가樹立되기도 前에 占領地域間에서는 이미 商去來 가 맺어졌다. 1946年부터 1948年 사이에 이를 위한 협정이 일곱번이나 맺어졌다. 1948年 7月 20日에 貨幣改革이 있은 後에도 또다시 세개의 協定이 맺어졌는데 그중 重要한 것은 벨린協定(Berliner Abkommen)으로서 1951年 9月 20日에 맺어졌다. 이 協定에 따라 東西獨間의 交易을 “占領地域間의 商去來”라는 表示代身에 “獨逸內交易(innerdeutscher Handel)”이라고 命名하였다.

1950年부터 1985年까지의 獨逸內交易量을 살펴 보면〈表-6〉과 같다.

〈表-6〉 西獨의 立場에서 본 獨逸內交易 1950~1985

(단위 : 100万VM, %)

年度	輸出	輸入	輸出入計	輸入의 前年度比 %
1950	414.6	330.6	744.6	*
1951	145.3	141.4	286.7	-61.5
1952	220.3	178.4	398.7	36.9
1953	306.9	271.3	578.2	45.0
1954	449.7	454.4	904.1	56.4
1955	587.9	562.5	1150.5	27.2
1956	653.4	699.2	1352.6	17.6
1957	817.3	845.9	1663.2	23.0
1958	858.2	800.4	1658.6	-0.3
1959	891.7	1078.6	1970.3	18.8
1960	1122.4	959.5	2081.9	5.5
1961	940.9	872.9	1813.8	-12.9
1962	914.4	852.7	1767.1	-2.6
1963	1022.3	859.6	1881.9	6.5

東西獨 經濟交流와 獨逸統一政策

1964	1027.4	1151.0	2178.4	15.8
1965	1260.4	1206.1	2466.5	13.2
1966	1345.4	1625.3	2970.7	20.4
1967	1263.9	1483.0	2746.9	-7.5
1968	1439.5	1422.2	2861.7	4.5
1969	1656.3	2271.8	3928.1	36.8
1970	1996.0	2415.5	4411.5	12.3
1971	2318.7	2498.6	4817.3	10.4
1972	2380.9	2927.4	5308.3	10.2
1973	2659.5	2998.4	5657.9	6.6
1974	3252.4	3670.8	6923.2	22.4
1975	3342.3	3921.5	7163.8	4.9
1976	3876.7	4268.7	8145.4	12.1
1977	3961.0	4409.4	8370.4	2.8
1978	3899.9	4574.9	8474.8	1.2
1979	4588.9	4719.6	9308.5	9.8
1980	5579.0	5293.2	10872.2	16.8
1981	6050.6	5575.1	11625.7	6.9
1982	6639.3	6382.3	13021.6	12.0
1984	6408.0	7744.0	14152.0	6.5
1985	7903.0	7636.0	15539.0	8.9

資料 : DDR Handbuch 1985. S. 646

Der Fischer Welt Almanach 87. Sp. 914~915.

위의 表에서 보여주다 싶히 1951~1953年과 1960~1963年까지 그리고 1967~1968年에 不則性을 發見할 수 있다. 1951~1953年 사이는 西ベル린 問題를 놓고 西ベル린과 西獨과의 관계 규명에서 東西內의 심한 見解差異가 이었으며 西方側의 貿易禁止令이 거론되던 때이다. 앞의 東西獨間의 歷史的 背景에서도 言及하였다. 싶히 東西獨 사람들이 比較的 자유롭게 往來할 때

產業研究

이르모 實際 交易量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專門家들은 말하고 있다.¹⁴⁾ 그리고 1960~1963年 사이는 벨린장벽을 東獨에서 構築하던 時期이고 東西獨關係가 政治的으로 惡化되었던 時點임을 감안할 때 西獨內交易에 영향을 끼친 것理解가 간다. 이렇게 볼 때 위에 말한 두번의 交易減少는 그 理由가 政治的인 데 있다. 1967~1968年에는 앞에 말한 벨린協定에 의하여 交易이 장애를 받게 된 경우이며 이 장애가 除去되자 兩國間의 交易은 다시 正常화되었다.

위와 같은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兩國間의 交易은 經濟成長과 더불어 꾸준히 成長하였다. 비록 이 期間을 包含하여 計算할지라도 前年比 成長率은 10%를 웃도는 크기이다. 이는 兩國의 經濟成長率을 훨씬 웃도는 數이다. 交易商品의 構造를 分析하여 보면 이는 先進工業國인 東西獨間의 商品構造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兩國經濟水準에 맞는다고 볼 수도 없다. 即 交易量 全體에서 볼 때 工業完製品의 比重은 적은 便이어서 마치 後進國의 交易構造와 비슷하다. 雙方이 交換하는 제품中 生產材와 工業用半製品이 全體交易量의 50%를 초과하는 立場이기도 하다.¹⁵⁾ 東西獨間의 交易은 그 名稱과 같이 貿易의 原則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純粹한 國內去來도 아니다. 이와 같은 特殊한 立場을 CATT協定과 EC協定도 認定하고 있다.¹⁶⁾ 이에 東西獨은前述한 基本協定에 따라 相互를 主權的 相對로 認定하면서도 認定하고 있다.¹⁷⁾ 이에 東西獨은前述한 基本協定에 따라 相互를 主權的 相對로 認定하면서도 이들간의 交易은 外國貿易으로 處理하지 않고 있으며 國內去來方向으로 補完해 나갔다. 即 兩側은 短期的 支拂能力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一定額의 “貿易赤字”를 마치 銀行의 當座資越과 같이 超過輸入을 할 수 있는 Swing制度에 合意를 보았다. 이 制度는 原則적으로 兩者가 다 利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東獨則이 一方의 으로 輸入超過를 하고 있어 實質적으로는 東獨이 無利子로 貸付를 받는 것과 같은 效果가 있다. 1975年에 이 Swing의 幅을 全體貿易量의 25%로 할 것이 合意하였으나 合意期間이 끝나면 다시 Swing의 幅을 定하기로 하였다.¹⁸⁾ 그 後의 變動과 東獨의 Swing 使用關係를 알아 보기로 한다.

14) Vgl. DDR Handbuch 1985. S. 646.

15) Vgl. Statistische Bundesamt, Warenverkehr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Berlin(Ost).

Fachserie F Reihe 6.

16) Vgl. DDR Handbuch 1985. S. 650.

17) eben da S. 645.

東西獨 經濟交流와 獨逸統一政策

〈表-7〉 協定된 Swing 限度의 그 使用(단위 : 100万VM)

年度	合意된	東獨의 平均利用額
	Swing限度	
1968	200	135
1969	360	270
1970	380	380
1970	440	380
1971	440	413
1972	585	539
1973	620	592
1974	660	559
1975	790	711
1976	850	786
1977	850	718
1978	850	677
1979	850	718
1980	850	741
1981	850	676
1982	850	582

資料 : DDR Handbuch 1985. S. 654.

東西獨間의 交易에서 東獨의 Swing의 혜택을 보고 있음은 위의 表에서도 쉽게 알수가 있다. 東西獨間의 交易이 法的으로 貿易이 아니기 때문에 關稅는 없으며 오히려 稅制上의 惠澤을 받고 있다. 따라서 東獨은 마치 EC國家처럼 西歐市場을 開拓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限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獨逸內交易을 GATT나 EC가 認定한다고 앞에서 말한바 있으나 이는 程度의 問題이다. 만약 交易量이 지나치게 많아서 EC市場을 교란시킬 경우라면 EC國家들이 이를 認定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1986年 日刊紙 Die Zeit

產業研究

取材班이 東獨의 一人者 Erich Honecker를 만나 인터뷰중에서 이런 말을 발견할 수 있다.¹⁸⁾

問：“兩獨間의 交易이 얼마나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얼마나 重要합니까?”

答：“東獨貿易의 70%는 社會主義國家와 이루어지고 있다. 蘇聯과의 交易量만도 年間 천 5 백만 루불에 이르고 있다. 社會主義國家가 아닌 나라와의 交易은 모두 30%에 達한다. 東獨은 이 比率을 지켜가되 물론 交易量은 增加시킬 것이다.”

問：“어떤 分野에서 經濟的 協力を 強化하여 가시겠습니까?”

答：“經濟的 協力を 強化할 分野는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交易構造를 改善할 必要가 있습니다. 만일 西獨이 部分적으로 占領時節에서부터 由來되는 交易의 妨害要素들을 除去한다면 交易은 매우 有益할 것입니다.”

問：“어떤 妨害要素를 말씀하시는지요?”

答：“그 첫번째는 西獨으로 보낼 商品의 割當制度입니다. 定해진 量만의商品이 去來됩니다. 이는 自由貿易이 아니라, 割當制 即 이러이러한 石油製品을 얼마로 定한다든지 이러저러한 消費財를 어떻다든지 하는 等等입니다.

그 두번째는.....”

위의 對話에서 東獨은 有利한 條件에서 西獨과 交易量을 增加시키고자 함을 알수 있으며 그렇다고 社會主義圈對 資本主義圈의 交易量의 比率은 그대로 維持하려 함을 알수 있다.

오랜 戰爭期間에도 그리고 東西獨이 다른 한쪽을 하나의 國家로 認定하느냐 않느냐는 마찰속에서도 비록 貿易量의 起伏은 있었으나 交易關係가 繼續되었다는 것은 西獨은 政治的理由에서 이 交易을 重要視하였고 東獨은 經濟的理由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東西獨間 生活水準의 比較

우리는 同一民族으로서 分斷國家에 살아야만 할때 한 가락의 希望은 어젠가는 統一國家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統一이 平和的으로 이루어지려면 民族의 自決權에 의할 수 밖

18) Vgl. Menge, Marlies U. Sommer, Theo :

Miteinander leben gut miteinander auskommen : in, Reise ins andere Deutschland, Hrg. v. Sommer, Theo, Reinbek bei Hamburg 1986 S. 256.

東西獨 經濟交流와 獨逸統一政策

에 없으며 自決權이 統一되려면 民族의 同質性이 重要한 要素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주 民族의 同質性 問題가 거론되게 되며 이 同質性은 分斷에 위하여 서로 다른 生活條件에 오래 살게되면 이 同質性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生活환경의 差異가 同質性 保存의 저해요인으로 생각 할 수 있으며 生活環境中의 하나인 生活水準의 격차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아 東西獨間의 生活水準을 比較하고자 한다.

〈表-8〉 重要 食料品과 者好品 一人黨 年間 消費量의 東西獨 比較

消費材	單價	東 獨			西 獨
		1960	1970	1982	1982
食料品					
돼 지 고 기	kg	33.3	38.7	55.8	49.7
닭 고 기 등	kg	3.7	5.1	10.3	9.4
기 타 육 류	kg	18.0	22.3	24.9	28.8
계 란	개	197	239	301	283
우 유	l	94.5	98.5	100.9	85.9
식 용 유	l	24.4	27.7	25.7	26.3
빠 다	kg	135	14.6	15.7	7.0
마 가 린	kg	10.3	11.0	10.8	8.4
곡 식	kg	96.2	92.2	94.2	63.0
감 자	kg	173.9	135.5	144.9	74.4
야 채	kg	60.7	84.8	95.6	69.3
과 일	kg		55.5	70.2	127.1
설탕, 설탕제 품	kg	29.3	34.4	44.0	36.1
者好品					
거 피 (원두)	kg	1.1	2.2	3.2	5.9
담 배	가치	1,069	1,257	1,788	1,829
포도주, 삼酹인	l	3.2	5.0	9.7	24.8
맥 주	l	79.5	95.7	147.0	148.1
독 주	l	3.5	6.6	12.7	6.8

資料 : DDR Handbuch 1985. S. 815

產業研究

生活水準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要素의 複合體이겠지만 本 研究에서는 計量化가 可能한 客觀的 指數에 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勿論 이 方法이 많은 “死角地帶”를 內包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生活水準을 家計消費 내지는 個人消費에 限定하기로 한다.

이렇게 볼때 한 나라의 生活水準은 그 나라의 經濟政策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게 된다. 一般的으로 社會主義國家는 一次的으로 原料產業을 建設하고 生產材의 生產에 重點을 두는바 消費財 產業에 영향을 미침과 同時에 私的 消費에 直接 영향을 준다. 그 結果 東獨은 西獨에 比하여 生活水準이 뒤지게 되었다. 물론 이 같은 問題에 東獨도 각별히 유념하였지만 아직도 현격한 格差를 보이고 있다. 다음 表는 食料品과 耗好品 消費의 東西獨 比較이다.

1960年부터 1982년까지의 一人當 年間 食料品 및 耗好品의 消費量을 比較하여 보면 현격한 改善이 되었음을 쉽게 알수 있다. 많은 食品에서 東獨과 西獨은 비슷하다고 하겠다. 다만 食料品 消費面에서 保健政策의 次元에서 영양과 다섭취를 피하라고 하고 있으나 높은 카로리의 食品을 여전히 많이 취하고 있는 實情이다. 다만 西獨과는 달리 야채와 과일의 消費는 東獨獨體의 수확여하에 따라 消費의 差異가 있음은 東獨消費政策의 다른 點이라고 하겠다.¹⁰⁾ 耗好品 消費에서도 東西獨間 큰 差異는 보이지 않으나 다만 포도주와 삼폐인의 消費量의 差異는 이 사치성 消費品의 價格에서 오는 結果이다. 커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耐久性 使用財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면 다음 表와 같다.

〈表-9〉 100 家口黨 耐久性 使用財 現況

	東 獨				西 獨
	1960	1970	1980	1982	1982
自家用 乘用車	3	16	38	42	78
オトバイ	25	42	45	42	11
라디오	19	137	159	-	153
T V	19	74	105	111	121
냉장고	6	56	109	119	158
세탁기	6	54	84	91	83

資料 : DDR Handbuch 1985. S. 815

東西獨 經濟交流와 獨逸統一政策

耐久性 使用財의 경우 自家用 自動車를 제외하고는 東西獨의 큰 差異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點은 바로 이들 耐久財의 品質에 관한 問題이다. 이 경우 東獨의 製品은 西獨의 品質을 훨씬 밀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장시 修理하는 데 附屬品의 不足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며 이는 修理와 같은 用役을 경시하는 社會主義國家에서 고질적으로 發生하는 하나의 制度的 모순이기도 하다.

VI. 東西獨 交易이 兩國關係에 미치는 영향

언제나 東西獨間의 사이가 不便하면 東西獨 交易에서 西獨이 東獨에 배풀고 있는 好意를 中斷할 것을 舉論한다. 그러면 이 交易에서 西獨이 東獨에 주는 惠澤이 과연 獨逸統一問題에서 西獨이 願하는 方向으로 東獨의 行動을 強要할 수 있을 程度로 크냐는 質問이 나온다. 앞에서도 言及한 것 처럼 東西獨間의 交易에서 東獨이 얻는 利益은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東西獨間의 交易을 政治的으로 利用하는데는 여러가지 問題가 있다.

東西獨 交易이야말로 兩國間에 면면히 이러져온 唯一한 安定된 細帶이다. 東西獨間 交易에서 利를 보는 것은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西獨에서도 결코 損害를 보는 것은 아니다. 西獨의 企業들도 東獨과의 交易에서 利益을 보고 있으며 이를 政治的으로 利用되기를 拒否한다. 만일 西獨이 東獨과의 交易을 急減한다면 蘇聯과 더 密着하게 된다던가 다른 西方國家와 交易을 增進하는 方向으로 東獨이 方向을 轉換할 公算은 크다. 그보다도 더 重要한 것은 東獨이 東西獨 交易을 通하여 經濟的 재재를 加할 때 獨逸統一政策이 어떻게 發展할지는 豫測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東西獨間의 交易이 政治的으로 利用될 때 어느 程度 影響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으나 그 結果가 과연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온 唯一한 東西獨간의 관계를 걸고 危險을 감행할만한 것이냐 하는 點에 있어서는 論難의 餘地가 있다.

西獨이 基本協定을 위반하지 않고 西獨에 재재를 加할 수 있는 또 다른 方法은 Swing의 幅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方法이 成功할 可能性은 그리 크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東西獨間의 交易量이 急激히 減少될 수 있고 이로 因하여 兩國이 다같이 損害를 보게 된다. 이런 事實은 過去의 經驗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60年 9月 30日 벨린장벽에 反對하여 벨린協定을 포기한다고 宣言하였을 때에 이에 對한 東獨의 對答은 西獨과 西ベル린간의 通行을 妨害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 因하여 東西獨間의 交易은 減少되었으나 그 後 通行을 妨害하지 않기로 하고 交易도 正常化 되었다. 그러나 그 後에도 여러번 벨린通行에 妨害를 받은

產業研究

적이 있으나 西獨側이 이를 理由로 東西獨交易에 制裁를 加하지는 않았다.

事實上 西獨이 東獨에 正當한 要求를 하고 東獨이 이를 是正하지 않을 때 이를 實徵식 힘方法이 없다. 또한 東西獨間에 오랫동안 이어온 이 유대는 그동안 曲折도 있었지만 그래도 東西獨分斷 以前부터 있어온 것이며 이를 通하여 가까운 이웃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手段으로 使用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現實인듯 십다.

VII. 結論

지금까지 東西獨間의 交易關係를 主로 考察하여 보았다. 물론 分斷國家의 統一問題가 經濟的인 側面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는 問題는 아니다. 그러나 獨逸의 경우 二次大戰 直後부터 繼續되어온 關係라는 點과 또 基本協定 以後 東西獨間에 많은 往來를 通하여 보다 가까운 이웃으로 사이를 긋혀가고 있다. 이렇게 되기에는 基本協定 以後 統一보다는 우선 平和維持의 定着이 더 重要하다는 點을 相互 깊이 認識하였며 基本協定 第7條에 대한 追加協定을 繼續締結하여 物的 交流만이 아니라 文化, 科學技術, 交通, 法律, 郵便, 電信電話, 衛生保健等 여러 分野에서 많은 關係改善을 하여왔다.

西獨의 日刊紙 Die는 1964年에 네명으로 構成된 取材班을 10日동안 東獨에 보낸적이 있다. 이 때 이 取材班의 人氣있던 報道題目은 “면 나라의 旅行”이었다. 그리고 그 內容은 대부분 장벽과 境界로 나누어진 한 國家에 대한 紹介였다. 그러면서 자주 自問한 바는 “언제까지나 永遠히?”라는 말을 많이 썼다. 1986年 여름 1964年에 同行했던 세사람과 또 다른 세사람이 한 班이 되여 비슷한 取材活動을 하였는데 이 許可는 共產圈 第一書記 Erich Honecker가 하였다. 이들은 造船所, 製鐵所 그리고 印刷機械工場을 訪問하고 Bad Doberan에서 教授와 Oranienburg에서는 軍人們과도 計論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네명의 中央黨 委員과 두명의 地方黨 書記長과 세명의 市長과도 意見交換을 하였다. 또한 10여명의 作家와 또 10여명의 人權, 女性指導者 그리고 大主教와도 만났다. 그리고 그곳 言論人們과도 親分을 交換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 取材班은 全部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程度 事實을 經驗하였다. 한 東獨指導層人士를 만났는데 나름대로 事實을 直視하고 自身의 判断力에 立脚하여 “우리는 過去의 어리석음을 말끔히 清算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 東獨人們이 가지고 있던 劣等意識은 여러가지 理由에서 자라졌다. 지금 東獨人們은 1964年 訪問하였을 때 처럼 共產國家에서 자주 입버릇처럼 말하는 政治的 宣傳이 아니라 “事實 天國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해 냈다”고 말한다.

共產主義的 樂園에 대하여 約束한바 없다면 共產主義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는 立場이었다고 한다. 그전에는 社會主義의 技術者라고 自負하여 왔는데 지금은 學士 技術者만이 있는 것이 東獨이기도 하다. 여러 모로 보나 住宅問題 解決이 階級鬭爭보다 더 急先務로 여기고 있다. 이런 여러 變化로 보아 東獨은 22年前과 같이 “먼나라”는 이미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東獨사람들이 이를 取材班에게는 믿음직 스러움기도 하고 同時에 낯선 면도 있다. 다시 말해서 東獨사람들은 西獨人에게 좀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獨逸人임이 틀림 없다는 것이 이들 取材班들의 結論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東西獨貿易은 좋은 때나 끽은 때나 때로는 굽게 때로는 가늘게 東西獨을 이어온 한가락 希望의 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줄이 西獨에서 東獨의 곳빼로 쓰기에는 너무 약하다. 때로는 東獨을 西獨이 끌어 당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西獨이 끌려 가기도 하면서 결코 끊어 지지는 않았다. 앞에서도 살펴 본았지만 東獨은 나름대로 東歐圈에서는 生活水準이 높은 나라이고 1960年에 比하여 1980년에 들어와서는 훨씬 生活水準이 向上되었다. 西獨取材班이 본 바와 같이 이들은 生活의 餘裕가 생기면서 생각의 餘裕가 생기고 階級鬭爭보다는 住宅難解消가 오히려 急先務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經濟發展으로부터 얻은 自信感은 西獨에 比하여 人口, 國土 그리고 經濟力의 下位에서 오는 劣等意識도 없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經濟成長이 自力에 의한 것이던 他의 도움에 의한 것이던 國民이 餘裕 있는 生活을 할 수 있게 되고 生活이 安定되면 구태여 어떤 學者の 理論을 引用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安定을 願하게 됐음 充分히 理解가 되는 것이다. 安定을 國民이 願한다면 戰爭은 禁物이기도 하다. 이런 意味에서 東西獨의 經濟發展은 유럽平和에 크게 貢獻할 수 있는 充分한 理由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좀 비약된 主張일수는 있으나 二次世界大戰後 戰爭이 일어난 곳은 가난한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것도 二次大戰後 獨立한 新生國家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자주 “代理戰爭”이란 用語가 使用된다.

앞에서도 몇차례 言及하였다. 심히 東西獨關係는 美蘇關係와 결코 無關할 수가 없다. 따라서 蘇聯의 改革政策이 東西獨間에 關係체 肯定的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때 韓國도 이 機會를 표착할 수 있는 슬기를 가져야 하겠다.

產業研究

< References >

1. Ludz, Peter Christian: Deutschlands doppelte Zukunft, Munchen, 1974.
2. Gass, Gunter: Texte Zur deutschen Frage, Darmstadt, 1981.
3. Behr, Wolfgang: Bundesrapublik Deutschland-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ystemvergleich Politik – Wirtschaft – Gesellschaft – Stuttgart, Berlin, Koln, 1979.
4. Brun, Wilhelm: Analysen, Deutsch – deutschen Beziehungen, Opladen, 1979.
5. Birnbaum, Karl E: East and West Germany, An Modus Vivende, Dordrecht, 1973.
6. Der Fischer Welt Almanach '83, '87.
7. Damus, Reante: Der reale Sozialismus als Herrschaftssystem an Beispiel der DDR, Giessen, 1978.
8. Der Spiegel, 36. Jahrgang – 37. Jahrgang.
9. Bundesministerium fur Deutsche Beziehung: Das DDR Handbuch 1985, Bd. 1. II.
10. Statistisches Dundesamt, Das Statistische Jahrbuch 1988. Wiesbaden 1988.
11. Sommer, Theo y.a. Hrg.: Reise ins andere Deutschland, Reinbek bei Hamburg, 1986.